

광양시, 김맥페스티벌로 '김시식지' 전승 나섰다

'김' 주제 체험 콘텐츠 풍성
인형극·마술공연·이벤트 등

광양김시식지를 둘러보고 김맥페스티벌을 즐기는 1석2조 여행코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광양시에 따르면 김부각, 김말이 등으로 변주되는 김과 맥주 페어링을 강조하는 김맥페스티벌이 매주 금요일 태인동 용지마을광장에서 오후 7시부터 펼쳐진다.

광양시에는 인류 최초 김을 양식한 역사를 기리는 '광양김시식지'가 있고 김풍작을 기원하는 전통문화 '용지 큰줄다리기가' 전승되고 있다.

광양김시식지(전남도 기념물 제113호)는 김 양식법을 창안한 김여익을 기리기 위한 곳으로 영모재, 김 역사관 등이

있다.

김여익은 병자호란에 청과 굴욕적인 화의를 맺었다는 소식에 통탄하며 광양 태인도에서 은둔하던 중 나무에 해초가 걸리는 것을 목격한다. 이에 착안, 태인도 이점을 살린 썰물이 방식 김 양식법을 창안 보급하면서 바다를 경작의 영역으로 확장했다.

수라상에 오른 김에 매료된 인조가 광양의 김여익이 진상했다는 말에 그의 성을 따 '김'이라 부르도록 했다는 스토리는 흥미롭기까지 하다.

태인동 용지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 주민 안녕과 김 풍작을 기원하는 '용지 큰 줄다리기가'를 300년 이상 계승하고 있다.

김맥페스티벌엔 생맥주와 김부각, 감자튀김 등 안주가 무료로 무한 제공되며 16일과 23일 2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광양김 생생인형극, 마술공연과 맥주



김 선발대회 등 참여자가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과 경품 추첨까지 곁들이고 있다.

김대성광양김맥축제추진위원장은 "김맥페스티벌은 김과 맥주와 축제를 결합

해 최초 김 시식지 역사성을 강화하고 광양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며 "시범 운영을 통해 추후 지속가능한 축제로 발전시켜 최초 김 시식지 가치와 명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구영 관광과장은 "광양김시식지는 채취하던 김을 인간이 길러내는 방식으로 전환해 K-푸드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매김 시켰으며 바다를 경작의 영역으로 확장한 창의공간"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김시식지는 설, 추석 등 명절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되며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이 진행된다.

인근에는 배알도 섬 정원, 망덕포구, 운동주 유교 보존 정병옥 가옥 등 관광지와 생선회, 재첩회·국 등을 즐길 수 있는 망덕포구먹거리타운이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19~23일 교통 전면 통제 여수시 덕충동 마래2터널

여수시 덕충동 마래2터널이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통제는 마래2터널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5000만 원을 투입, 터널 내부 낙석 위험요소 제거 및 일부 훼손구간 보수 공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다.

통제기간 동안 여수엑스포역-만성리·오천동 방면 통행은 여수엑스포역·덕충 IC·만항IC·여수시장이인종합복지회관·만성리 해수욕장 방면으로 우회해야 한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군 '돌돔' 종자 8만마리 방류 수산자원 회복·소득 증대

고흥군은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14일 금산면 신촌해역에 '돌돔' 종자 8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 조업어장 축소와 불법어업으로 인한 남획, 고수온·온난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고갈되는 연안어장 어족자원을 확보해 바다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방류한 돌돔은 지역 어장 환경에 적합하고 위판가격이 높아 지역 어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다.

고흥군은 매년 수협, 어업인 단체와 협력해 방류어종을 선정하고 수산종자 매입·방류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권역별 해역에 적합한 감성돔, 점농어, 개조개 등 5개 품종 수산종자를 방류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금강축봉 법정 탐방로 신설 건의 고흥군, 국립공원계획 신청



고흥군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구역 내 도화 지족도 금강축봉으로 가는 구간에 대해 자연공원법에 따른 법정 탐방로를 신설하고자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고흥 지족도 금강축봉은 수직절벽 높이가 100m에 달하는 웅장한 주상절리로 지질학적 가치가 높고 주변 풍광과 어우러진 빼어난 경관을 간직하고 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2021년 6월 국가지정문화재(명승)로 지정받은 '금강축봉'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으로, 국립공원계획 상 탐방로가 공원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아 현재까지 법정 탐방로가 없어 방문객들은 비법정 산길(갯길)을 이용 중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이곳에 대한 출입통제를 하고 있으며 무단출입자에 대한 행정조치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립공원계획에 '금강축봉 탐방로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12일 환경부에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김은지 기자



구례군이 14일 도펠마이어/가라벤타그룹, 대원플러스그룹과 '구례 섬진강·지리산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섬진강·지리산 관광인프라 구축 나선다

구례군은 14일 도펠마이어/가라벤타그룹, 대원플러스그룹과 '구례 섬진강·지리산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영광 부군수를 비롯해 도펠마이어/가라벤타그룹 토마스 피츨러 CEO와 대원플러스그룹 최호섭 총괄사장 등이 참석했다.

오스트리아 업체 도펠마이어/가라벤타그룹은 1928년에 설립된 회사로 전 세계 50개국 자회사 및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21년 기준 7억6000만 유로(1조8000억원)의 연간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계 최장 케이블카 설치 실적 등을 보유하고 있다.

대원플러스그룹은 구례군의 민·관 합작 대형 프로젝트 오산권역 대규모 힐링

여행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3월28일 구례군과 '구례 오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업체다. 해운대 두산위브 더 제니스타워, 송도해상케이블카, 시흥 웨이브파크 등을 조성해 랜드마크 디벨로퍼로 이름이 알려졌다.

업무협약에 따라 도펠마이어/가라벤타그룹과 대원플러스그룹은 사업을 위한 투자, 기술지원, 콘텐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군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군 의회와 협력을 약속했다.

유영광 구례부군수는 "섬진강·지리산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을 민선 8기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하여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흑두루미 먹이용 쌀 손 모내기 순천시 인안 초등학교 학생들이 14일 순천만 희망 영농단지에서 흑두루미 먹이가 될 쌀 생산을 위해 손 모내기를 했다. 순천시 제공

김성 장흥군수, 공모사업·내년 국고유치 총력

김성 장흥군수가 공모사업과 2024년 국고 건의사업 유치를 위해 13일 행안부, 해수부, 농식품부, 산림청을 방문했다.

14일 장흥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대덕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사업 △김산산업진흥구역 지정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천관산 등산학교와 국립 천관산 산림 치유원 조성사업을 건의했다. 행안부에 건의한 대덕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사업은 400억원 규모의 하천정비 사업이다.

군은 하천정비와 배수펌프장, 교량, 취수보 설치를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3개 마을 124세대, 214명이 재해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김산산업진흥구역 지정과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요청했다.

장흥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ASC-MSC 국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무산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김산산업진흥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무산김 생산과정은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나 마른김 가공공장의 친환경 인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건의에 나선 것. 군은 김산산업진흥구역 지정으로 품질 고급화와 수출 판로 확대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립공원과 천관산에 대해 천관산 등산학교와 천관산 산림 치유원 조성 사업을 산림청에 건의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정인화 광양시장, 포스코에 지역현안 협조 요청

정인화 광양시장이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14일 광양시에 따르면 정 시장은 전남 울진1산단에서 열린 포스코리튬솔루션 수산화리튬공장 착공식에서 최정우 회장을 만나 지역민의 희망을 전달했다.

정 시장이 전한 사안은 △포스코퓨처엠 분사 광양시 이전 △포스코홀딩스 산하 연구소 광양 설립(이전)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 '망초' 재자원화 시설 구축 △정복수소 기술개발 실증지역 지정 △광양제철소 계약전담부서 신설 △포스코 이앤씨 세풍산단 직접 개발 추진 △중마동-금호동 간 중금대교 조속 가설 △'광

양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재건축비 분담 △미래 신사업 투자 확대 및 신규법인 설립 등 9건이다.

정 시장은 "민관협력 우수모델인 포스코와 광양시의 관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질길 바란다"면서 "광양에서 더 발전하는 포스코가 되길 희망하며 광양에 이차전지소재 사업 등 신사업 분사들과 관련 연구소들을 이전에 주길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최정우 회장, 김학동 부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임직원들과 함께 '포스코 광양제철소 모범 시민 워크 연합봉사'에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양=안영준 기자